

G L O B A L

D R E A M

C O M P A N Y

CONTENTS

08	CEO's Message
12	2012 Business Highlights
14	Board of Directors
16	Business Overview
30	About LS Group
32	About LS Networks
34	Corporate History
36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43	Financial Statement



LS네트웍스는 2007년 LS그룹에 편입 후 그룹 내 소비재 대표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유통 및 글로벌 상사 사업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꿈꾸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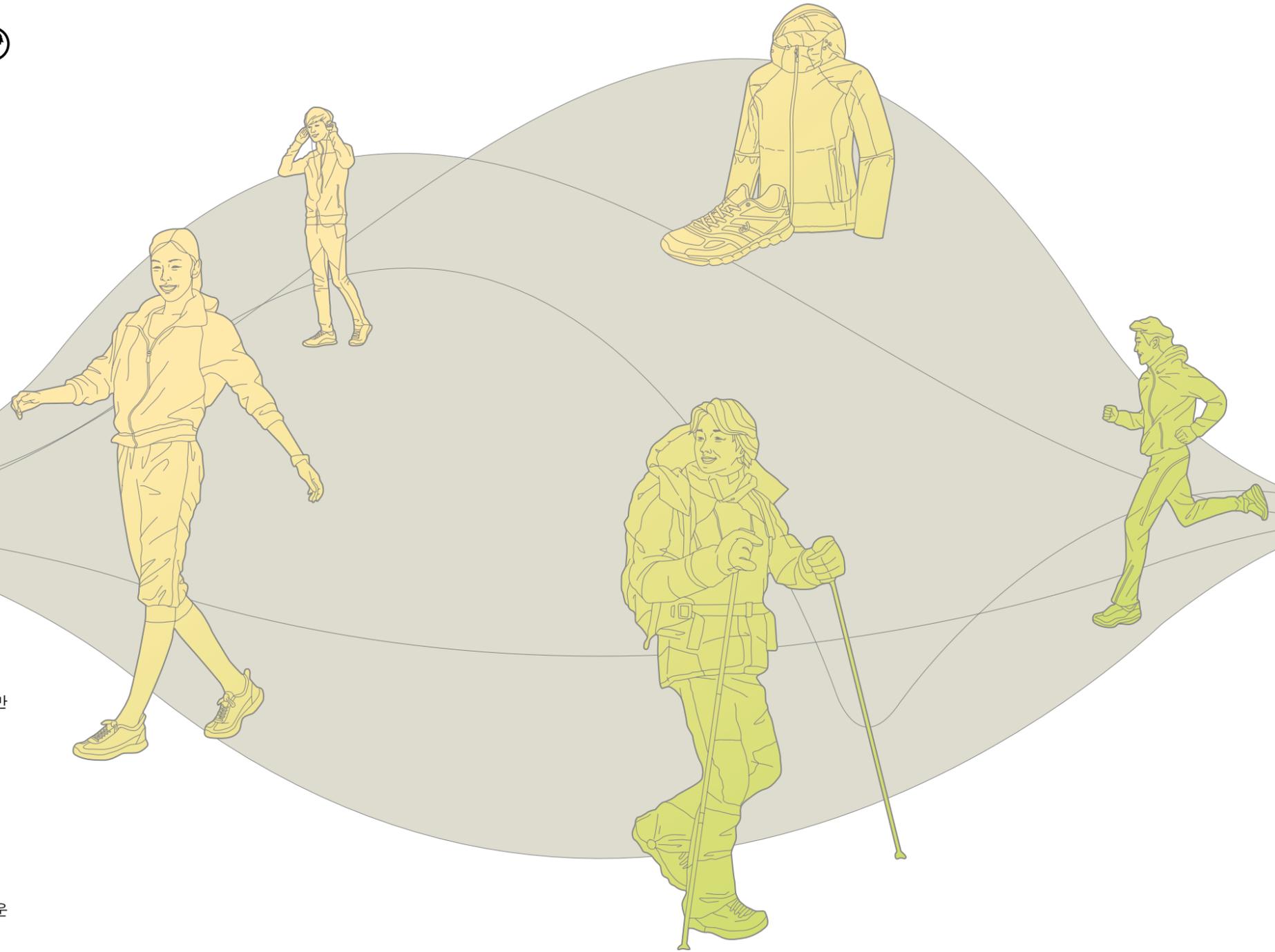
2012년, LS네트웍스는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전년 대비 50%가 넘는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에는 소통과 창의의 조직 문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며 새로운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Consumer
Brand & Retail
Business

Networking with the Happiness

우리는 매일 수많은 브랜드를 경험하지만
고객과 교감하는 브랜드, 고객 만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브랜드는 흔하지 않습니다.
LS네트웍스는 프로스펙스를 운영하며
30년 넘게 쌓아 온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브랜드들을
선보이면서 고객이 더 건강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LS네트웍스는 고객을 밝고 행복한 미래로
안내하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Asset Management
Business

Networking with the Growth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자라듯,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산 확보가 필수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꾸준한 투자 역시 든든한 기초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LS네트웍스는 새로운 가치와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자산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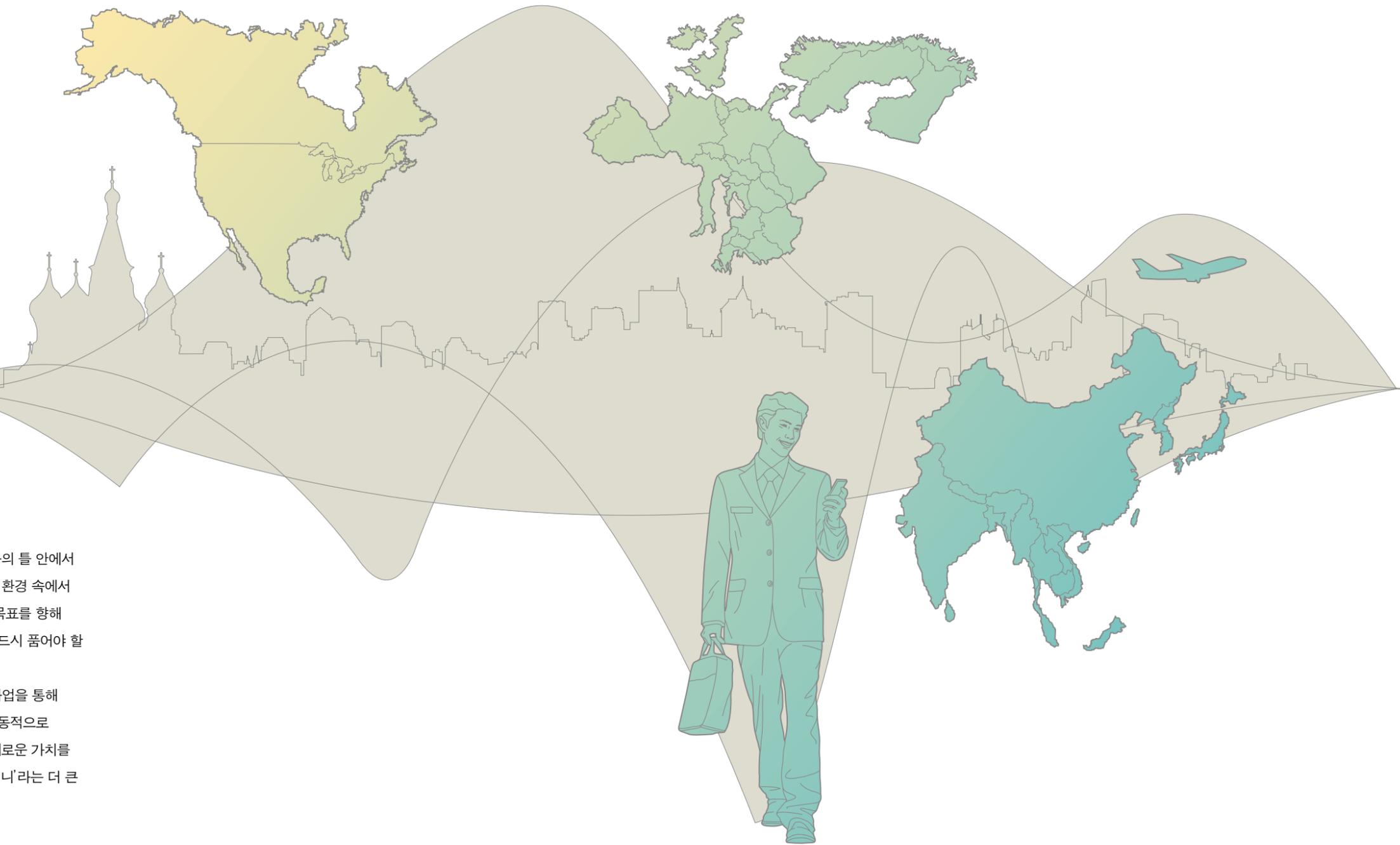


Global Trading
Business

Networking with the Dream

세계는 이제 국경이 없는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기업에게 세계는 반드시 품어야 할 꿈입니다.

LS네트웍스는 글로벌 상사 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서 '글로벌 드림 컴퍼니'라는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2012년 LS네트웍스는 브랜드 부문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상사 부문의 적극적인 사업 확장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 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2012년은 재정 위기와 중국을 포함한 신흥 시장의 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글로벌 경기 침체는 내수 부진 등 국내 경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우리 LS네트웍스의 경영 환경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 51.1%, 영업이익 49.7% 신장

LS네트웍스는 이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2012년 브랜드 부문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상사 부문의 적극적인 사업 확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51.1% 신장한 6,39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9.7% 증가한 150억 원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과 수익 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 부문의 주력 사업인 프로스펙스는 '워킹화 W'의 지속적인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매출액 3,072억 원을 기록해 경쟁 스포츠 브랜드 중 최고 수준인 13.6%의 매출 신장을 달성하였고, 몽벨, 스케처스와 같은 신규 브랜드들도 지난해 아웃도어 업계의 호황과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1.0%와 79.7%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글로벌 상사 사업에서는 카자흐스탄 광통신 기자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석탄 무역 등 원자재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전년 대비 357%의 매출액 신장을 보였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주 및 고객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396

억 원

2012년 LS네트웍스는 브랜드 및 글로벌 상사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51.1% 신장한 매출액 6,396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2013년, 내실 경영으로 핵심 사업 역량 강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최근 정부는 금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4%에서 3%로 낮춰 발표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013년 경영 환경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LS네트웍스는 국내외 경기 침체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주주 및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지속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LS네트웍스는 2013년 경영 방침을 '소통과 창의의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명확한 목표(책임)와 강한 실행력(열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핵심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내실 경영을 기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인 브랜드 부문과 상사 부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비핵심 사업 부문인 토요타자동차 판매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핵심 본부별로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원가 절감, 고효율 마케팅 등을 통해 사업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전 2020'을 실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기업 문화는 회사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LS네트웍스는 2012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미래 목표와 행동 양식을 '비전 2020'이라는 이름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인재들이 새로운 사고와 전문성으로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Global Dream Company'는 LS네트웍스의 새로운 비전이며, '소통·책임·열정·창의'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내재화할 구체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2013년, LS네트웍스는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를 통해 차별화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57%

LS네트웍스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글로벌 상사 부문은 2012년 CIS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 전년 대비 357%의 매출액 신장을 보였습니다.

2013년,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

셋째,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드림 컴퍼니'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세계는 국경을 허문 하나의 경제 체제입니다. 미래 초우량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상사 부문은 이미 수립한 집중화 전략을 지속하며 해외 사업을 심화할 것이고, 브랜드 핵심 부문인 프로스펙스 사업은 중국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11년 중국에 진출한 몽벨 사업 또한 이제 본 케도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 연속 무고집 임금 위임' 등 회사의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여준 노동조합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설적인 노경 문화를 이어가고, 이해 관계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경영 또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LS네트웍스 전 임직원은 2012년 경기 불황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역량을 바탕으로 2013년에도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며 내실을 기하여 지속 성장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늘 주주 및 고객 여러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LS네트웍스가 새로운 비전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주 및 고객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

LS네트웍스 대표이사

2012년 주요 활동

January



3년 연속 무교섭 임금 위임

LS네트웍스 노사는 상시 위기 시대에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상호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2년 사무식에서 '3년 연속 무교섭 임금 위임'을 결정하며 미래 지향적인 노사 협력의 문화를 이어갔습니다.

흥업백화점 인수 및 영업 활동 재개

LS네트웍스는 2011년 12월 청주 흥업백화점을 인수 완료한 뒤, 2012년 사명을 '흥업백화점'에서 '흥업'으로 바꾸고 리모델링을 거쳐 정상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성기 시절 청주 상권을 대표했고 이후에도 향토백화점으로 청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온 흥업은, 새로운 매장 구성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고객을 맞으며 청주 지역의 대표 유통망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July



카자흐스탄 광통신 기자재 공장 준공 (알파 네트워크스 JV)

LS네트웍스는 7월 10일 카자흐스탄 'Alatau IT PARK'에서 카자흐스탄 신기술산업부 및 교통통신부 장관,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통신 기자재 공장인 '알파 네트워크스(Alpha Networks)'를 준공하였습니다. 알파네트웍스는 카자흐스탄 카작텔레콤과의 합작 법인으로 광통신 부자재 제조를 담당하며, 당사 글로벌 상사 부문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August



프로스펙스 'W' 300만 족 판매 돌파

프로스펙스 'W'가 2009년 9월 출시 이래 3년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족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치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워킹화와 러닝화를 구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한편, 2012년 새롭게 출시한 'W Cool' (연아 라인)과 'W Power' (수현 라인) 역시 한달여 만에 10만 족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eptember



새로운 비전 및 가치 체계 수립

LS네트웍스는 '건강한 인재들이 새로운 사고와 전문성으로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Global Dream Company'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전략 방향과 핵심 가치를 담은 가치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중기 목표를 '2020년까지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2,000억 원 달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바이클로 아카데미 개원

LS네트웍스는 건강한 자전거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9월 12일 바이클로 아카데미를 개원하였습니다. 이는 자전거 업종과 관련한 창업이나 취업 희망자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자 비영리 공익 사업으로, 전문가 교육 아카데미, 일반인 교육 아카데미 및 라이딩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November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프로스펙스가 2012년 <제14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 유일의 브랜드 관련 정부 포상 제도로, 매년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 가운데 다섯 곳을 선정해 상을 수여합니다.

LS네트웍스는 프로스펙스를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지식경제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스포츠 워킹화 시장을 개척하고, 워킹 토털 브랜드 '프로스펙스 W'를 론칭해 단기간에 성공시키면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가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경영 시스템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됩니다. LS네트웍스는 일찍이 선진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출범 당시부터 추구해 온 LS그룹의 경영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LS네트웍스는 사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자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자는 책임 경영의 원칙 아래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회사를 소신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LS네트웍스 이사회는 총 12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2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건의 안건을 결정하였으며,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99%였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는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LS네트웍스는 앞으로도 이사회 중심의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을 통해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와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a 구자열 회장

- (現) LS 회장 (2013~)
- LS전선/엠펙스 사업부문 회장 (2009)
- LS전선/동제련/엠펙스 사업부문 회장 (2008)
- LG전선(現 LS전선) 대표이사 부회장 & CEO (2004)
- LG전선 대표이사 부사장 (2002)
- LG투자증권 영업총괄 부사장 (2000)
- LG상사 일본지역본부 이사 (1992)

b 구자용 회장

- (現) LS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2013~)
- (現) E1 대표이사 회장 (2011~)
- LS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 (2010)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2009)
- E1 사장 (2005)
- LG칼텍스가스 기획/재경담당 상무 (2001)
- LG전자 EUS법인 이사 (1996)



c 김승동 대표이사 | 사장

- (現) LS네트웍스 대표이사 사장 (2012~)
- LS네트웍스 대표이사 부사장 (2011)
- LS네트웍스 글로벌사업본부장 전무 (2010)
- LS네트웍스 상사개발TF팀장 전무 (2010)
- LG상사 수입유통부문장 상무 (2007)
- LG상사 모스크바 지사장 상무 (2006)

d 안경환 | 경영지원본부장

- (現) LS네트웍스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2013~)
- LS네트웍스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2010)
- LS네트웍스 기획/재경본부장 이사 (2007)

e 오호수 | 사외이사

- (現) LS네트웍스 사외이사 (2010~)
-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2001)
- LG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1998)
- 대우증권 부사장 (1996)

f 금병주 | 사외이사

- (現) LS네트웍스 사외이사 (2007~)
- 우성아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2007)
- LG상사 대표이사 사장 (2004)
- LG상사 패션사업부 전무 (2000)

Business Overview



Consumer Brand
Business



Consumer Retail
Business



Global Trading
Business



Asset Management
Business

LS네트웍스는 브랜드·유통·글로벌 상사 사업 등을 통해 브랜드에서 유통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그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형·미래형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은 프로스펙스에서 출발해 몽벨과 스케쳐스, 잭울프스킨을 운영하며 스포츠·아웃도어 전문 브랜드군을 형성하고 있고, 유통 사업은 자전거 전문 브랜드 바이클로를 선보이며 새로운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사 사업은 글로벌 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Consumer Brand Business

차연수 이사 | 브랜드전략담당

브랜드 사업은 고객에서 시작합니다. 고객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며,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을 정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를 비롯해, 일본 No 1.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스케처스, 독일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잭울프스킨 등 LS네트웍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며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Consumer Retail Business

이우진 차장 | 유통사업본부

2010년 론칭한 자전거 전문 브랜드 바이클로는 판매에서부터 정비, 유지 보수 및 각종 라이딩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늘 고객의 필요를 한 발 앞서 만족시켜 왔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시작한 바이클로 아카데미는 자전거 관련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정착시키며 국내 자전거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Global Trading Business</p>	<p>한건호 차장 글로벌사업본부</p>
	<p>2011년 출발한 글로벌 상사 사업은 2012년 카자흐스탄 광통신 부자재 공장 설립, 비철금속·철강·석탄 트레이딩 등으로 본격적인 비즈니스에 진입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시장을 전략 지역으로 정해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 규모를 키우는 한편 저개발국 인프라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미래 자원 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p>



<p>Asset Management Business</p>	<p>김용선 수석 경영지원본부</p>
	<p>자산개발 사업은 LS네트웍스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끄는 토대입니다. LS용산타워는 입주 고객들에게 스마트 빌딩의 새로운 면모를 제공하며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고, 인천과 김해, 성남 등의 물류 부지는 브랜드 사업에서 유통 사업으로, 다시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LS네트웍스의 전진기지입니다. 앞으로도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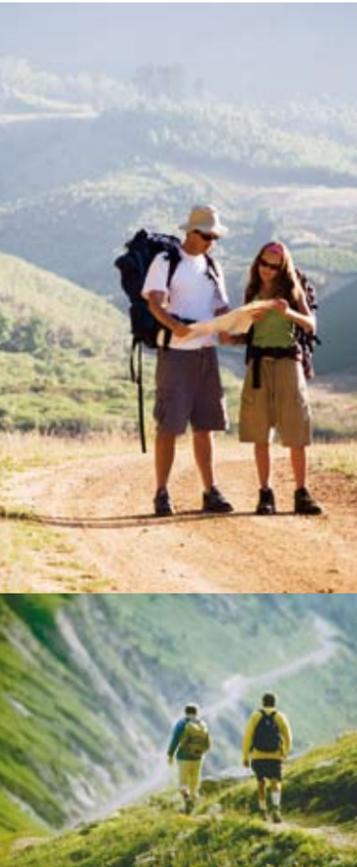
<p>Consumer Brand Business</p>		<h2 style="color: #0070C0;">프로스펙스</h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div> <div style="width: 65%;"> <p>프로스펙스(PROSPECS)는 2009년 9월 워킹 토탈 브랜드 'W' 론칭과 함께 국내 워킹 트렌드를 선도하며 스포츠 워킹화 No.1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2년, 프로스펙스는 브랜드 상징인 비를 과감히 바꾸고 피겨 퀸 김연아를 모델로 정해 젊고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소비자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워킹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소비자 인식을 바꾸며 국민 체육의 새 장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제14회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p> <p>2013년, 프로스펙스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국내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자 20대 트렌드에 맞는 'W LITE' 라인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김연아의 새로운 파트너로 감성 밴드 '씨앤블루'를 발탁하고, 'WALK LIGHT, LIVE BETTER'라는 캠페인 슬로건 아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젊고 감각적인 워킹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볍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W LITE' 라인은 무브 프레임 플레이트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워킹을 유도하는 'W LITE LAYER', 초경량 워킹화 'W LITE WAVE', 피팅감을 극대화한 캐주얼 워킹화 'W LITE NEO' 등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으로 젊은 층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편 프로스펙스는 워킹화 외에도 다양한 의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스펙스 의류 제품은 신축 소재를 사용해 활동성을 높였으며, 부드럽고 산뜻한 컬러와 슬림한 라인으로 운동할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p> <p>이제 프로스펙스는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메가 스포츠 브랜드'로 한 단계 도약하려 합니다. 또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브랜드 및 제품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p> </div> </div>		
<p>www.prospecs.com</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Consumer Brand Business</p>		<h2 style="color: #0070C0;">몽벨</h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div> <div style="width: 65%;"> <p>LS네트웍스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일본 아웃도어 No.1 브랜드 몽벨 (mont-bell)을 2008년 한국 시장에 론칭하며 국내 아웃도어 업계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몽벨은 일본 최고의 산악인 이사무 다츠노가 1975년에 설립한 브랜드로 프랑스어 '몽(mont:산)'과 '벨(bell:아름다운)'을 합쳐 '아름다운 산'을 뜻합니다.</p> <p>모든 제품에 'Light & Fast', 'Function is Beauty'의 철학을 담고 있는 몽벨은 첨단 기술력과 소재로 어떠한 자연 환경에서도 몸을 보호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최상의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와 용품을 선보입니다. 초경량 53g 7D (데니어) 방풍 재킷, 초경량 12D 고어텍스 재킷 등은 모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몽벨의 대표 상품입니다. 또한 2011년 초경량 기능성 제품을 검증하는 'Prove Team' 활동으로 최고의 제품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심플함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광고 캠페인으로 유수의 광고제에서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p> <p>특히 LS네트웍스는 일본 몽벨 본사로부터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중국 시장 내 몽벨 경영권을 획득하고, 2011년 7월에 중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몽벨 일본 본사가 아닌 몽벨 코리아가 진출한 것은 LS네트웍스의 탁월한 브랜드 운영 능력을 본사에서 인정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입니다.</p> <p>몽벨 중국 법인은 2011년 10월에 베이징 중심 상권인 CBD 스마오펜제(世貿天階/ THE PLACE)에 직영점을 개설하고, 2012년 4월에는 베이징 3대 백화점 중 하나인 엔샤(燕莎)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중국 아웃도어 시장 진입 및 초기 유통망 개설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중국 내 300개 유통망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p> <p>2013년, 몽벨은 자체 유통망 160여 개 확보를 목표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인 김창호 대장의 '아시아 최초 히말라야 14좌 무산소 등정' 후원은 단 1g의 헛된 무게도 허용하지 않는 초경량성을 바탕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클라이밍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몽벨의 기술력을 또 한 번 입증한 사례입니다.</p> </div> </div>		
<p>www.montbell.co.kr</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Consumer Brand Business</p>		<h2 style="color: #0070C0;">스케처스</h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div> <div style="width: 65%;"> <p>스케처스(SKECHERS)는 기능성 스포츠화, 라이프스타일, 패션스트리트, 캐주얼, 키즈 등 16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브랜드입니다. 탁월한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나이키에 이어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해 다양한 고객층의 까다로운 패션 취향을 만족시키는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p> <p>LS네트웍스는 2009년 5월 토털 스포츠 브랜드로 스케처스를 론칭하고, 워킹·러닝화 '쉐이프업스(Shape-ups)' 제품을 출시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양말 하나 신은 것' 같은 편안함과 함께 세련된 디자인, 다채로운 컬러를 겸비한 '쉐이프 업스 리브(Shape-ups Liv)'를 출시해 폭발적인 판매 신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p> <p>2013년, 스케처스는 경량성과 하이-테크놀로지를 강화한 제품과 'Light is Power'라는 캠페인 메시지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주력 제품인 '리브(Liv)'와 '고런2(Gorun2)'를 중심으로 워킹과 러닝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아이돌 그룹 '샤이니'를 모델로 기용해 젊은 층을 더 폭넓게 흡수할 계획입니다.</p> <p>또한 러닝 특화 제품군 '고런2'으로 러닝 주요 타깃인 남성 고객 확보에도 주력하는 한편, 신발과 스포츠 의류의 연계 판매로 인한 시너지 창출에도 힘써, 차별화된 스포츠 브랜드로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p> </div> </div>		
<p>www.skecherskorea.co.kr</p> <p>전국에 100개 이상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스케처스는 2012년 발 가운데로 딛는 새로운 러닝화 '고런(Gorun)'을 출시 하면서 퍼포먼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토털 스포츠 브랜드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러닝 트렌드를 공유하는 마라톤 대회</p>		
		

<p>Consumer Brand Business</p>		<h2 style="color: #0070C0;">잭울프스킨</h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div> <div style="width: 65%;"> <p>1981년 독일에서 탄생한 잭울프스킨 (Jack Wolfskin)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웃도어 판매 1위, 유럽 기능성 아웃도어 재킷 시장 1위 등 아웃도어의 본 고장 유럽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점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At Home Outdoors'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하여,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사람들과 더불어 자연을 즐기고, 높이 올라가기보다는 멀리 자연을 경험하러 가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추구합니다.</p> <p>잭울프스킨은 유럽의 감성과 문화를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컬러가 특징으로, 디테일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상품 개발 및 디자인 철학을 통해 다양한 아웃도어 환경에서 최상의 기능을 구현하는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또한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여, 텍사포어 (TEXAPORE), 나눅(NANUK), 스톱락(STORMLOCK) 등 웨더 프로텍션(Weather Protection) 기능이 탁월한 기능성 소재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사용하고 있습니다.</p> <p>LS네트웍스는 2008년 한국 시장에 잭울프스킨을 론칭하고, 클라이밍, 트레킹은 물론 하이킹, 캠핑, 도심 아웃도어 등 일상과 아웃도어를 두루 아우르는 제품으로 기존 한국형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차별화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잭울프스킨 한국어 브랜드 사이트를 개설하고 라이선스 제품 출시 등으로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위상 정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p> <p>2013년, 잭울프스킨은 텍사포어가 지닌 방수 및 투습력에 소프트셸의 신축성을 더한 기능성 소재 '텍사포어 소프트셸 (TEXAPORE SOFTSHELL)'을 출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또 한 번 독창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라이선스 상품 개발과 생산, 인지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및 지속적인 유통망 확장을 통해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럽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로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p> </div> </div>		
<p>www.jack-wolfskin.co.kr</p>		
		

<p>Consumer Retail Business</p>		<h2 style="color: red;">바이클로</h2>
	<p>2010년 4월 론칭한 자전거 전문 브랜드 바이클로(biclo)는 단순한 자전거 판매를 넘어 체계적인 정비 서비스와 유지 보수 시스템, 라이딩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 국내 자전거 유통 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p> <p>2012년, 바이클로는 브랜드 유통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바이클로 아카데미'를 오픈하였습니다. 비영리 전문 교육 기관인 바이클로 아카데미는 자전거 관련 창업 희망자들에게 운영, 정비 등을 교육하는 전문가 과정과 안전한 라이딩 및 경정비를 교육하는 일반인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토털 솔루션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p> <p>또한 벤처회사와 협업으로 전기자전거 '토마(TOMA)'를 출시하여 다가올 전기 자전거 시장에 대비하는 한편, 한국 자전거 고객들의 니즈와 신체 조건에 부합하는 자전거와 용품 개발을 위해 '무브(MOUVE)'라는 독자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p>	<p>2013년, 바이클로는 자전거 직영 유통 체제에서 자전거 제조, 수입 유통 체제로 단계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p> <p>더불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독립된 자전거 AS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선진 자전거 유통 방식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며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p>
<p>www.biclo.co.kr</p>		

<p>Consumer Retail Business</p>		
<p>www.walkntalk.co.kr</p>		<h2 style="color: red;">웍앤톡</h2> <p>2011년에 론칭한 웍앤톡(WALK & TALK)은 전세계 아웃도어 톱 브랜드만을 엄선해 만든 아웃도어 라이프 멀티숍입니다. 2011년 대치동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캠핑 부문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p> <p>웍앤톡은 신발, 의류, 모자, 배낭, 텐트 및 각종 소품 등 100여 개의 엄선한 국내외 브랜드를 통해 액세서리부터 전문 용품까지 어떤 도보 여행이라도 맞춤형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보 여행의 필수품이자 주력 제품군인 신발은 머렐, 하이텍, 킨, 컬럼비아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북미와 유럽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의 워킹, 하이킹, 트레킹 신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류로는 스웨덴 프리미엄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픽퍼포먼스(Peak Performance), 세계 최고의 기능성 이너웨어 브랜드 오들로(odlo) 등을 국내에 최초로 선보였으며, LS네트웍스 자매 브랜드인 몽벨, 잭 울프스킨을 비롯한 다양한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트레킹 활동에 적합한 배낭, 히ipse 등을 비롯해 모자, 양말, 장갑 등 다양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해외 도보 여행 관련 각종 전문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p> <p>웍앤톡은 레저 문화를 즐기는 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아웃도어 라이프 컨설턴트를 목표로 합니다. 도보 여행 유형별로 상품을 제안하고, 매장 내 트래커스 라운지에 준비된 북카페와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의 발 형태 및 구조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가장 편하게 오래 걸을 수 있는 인soles를 매장에서 성형 제작하는 등, 도보 여행에 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웍앤톡만의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p>

Global Trading Business



글로벌 상사



LS네트웍스는 나날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삼국간 무역, 수입 유통 등 사업 기능을 다원화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품,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제품 및 플랜트 등을 수출하고, 기계·설비 및 원자재 수입을 적극 추진하며 상사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상사 부문은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를 전략 지역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지 밀착 영업을 위해 2011년에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및 블라디보스토크에 지사를 개설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카자흐스탄에 광통신 부자재 제조 공장을 설립해 중앙아시아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러시아 내 중장비 사업 기회를 포착해 추진 중이며, 중앙아시아 자원 개발 환경을 사업 기회로 삼아 건설 기자재 등 관련 품목 트레이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은 비철금속 및 철강, 석탄 트레이딩을 통해 자원 원자재 사업의 물꼬를 튼 한 해였습니다. 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안티몬, 니켈 등 품목을 다변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의 광산 투자개발 등 자원·원자재 투자 사업 기회를 모색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자원·에너지 분야로 사업 분야를 넓혀 상사형 사업 기반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 엔진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저개발국가 자원 자금(EDCF, World Bank 등)을 활용한 인프라 및 플랜트 구축 사업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신흥 시장에서 신규 사업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오거나이징, 리스크 관리, 글로벌 네트워킹 등 상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Asset Management Business



LS용산타워

LS용산타워는 서울 신도심의 랜드마크이자 LS네트웍스의 상징으로, 자산 개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 건립된 LS용산타워는 3년에 걸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스마트 빌딩으로 그 면모를 일신했으며, 입주사의 니즈를 반영해 지하 아케이드를 구성하는 등 최상의 입지 조건과 가격 경쟁력 및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입주사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보유 자산의 가치를 높여 갈 것입니다.

Asset Management Business



김해/인천/성남/상주 물류 부지

LS네트웍스는 신규 자산 확보와 보유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미래 수익성 투자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해 부지는 현재 물류센터 및 부지 임대용도로 운영 중이며,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용도 변경이 가능하여 새로운 자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인천항 내에 위치해 컨테이너 하역장으로 활용 중인 인천 부지는 향후 LS네트웍스의 글로벌 상사 업무를 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성남 부지는 냉동 창고 및 물류 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 계획 중인 상주의 물류 센터가 완공되면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성남 부지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어 미래 자산 가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About LS Group

LSpartnership®으로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LSpartnership®은 LS그룹의 경영 철학입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존중과 배려, 신뢰를 기반으로 주인의식을 가진 인재들이 함께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LSpartnership®은 실천하는 파트너십인 True Partnership을 지향합니다. LS의 모든 구성원은 LSpartnership®을 통해 전 세계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에서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LS그룹은 LS전선, LS산전, LS-Nikko동제련, LS엠트론, 가온전선, E1, 예스코 등 주력 자회사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및 소재 분야에서 대한민국 1등 기업의 명성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주)국제상사를 인수하여 LS네트웍스로 재탄생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B2B 중심에서 B2C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LS그룹은 지주회사인 (주)LS를 중심으로 계열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책임 경영을 구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및 신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코 비즈니스로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LS그룹은 지금까지 쌓아 온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연관성이 높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에코 비즈니스 분야에 진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미래형 자동차 부품 및 솔루션, 친환경 기기 및 부품 산업 분야에서 에코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가능케 하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친환경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 LS그룹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의 핵심입니다.

LS그룹 경영 철학



LS그룹 계열사



About LS Networks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 하는 브랜드·유통 전문 기업

LS네트웍스는 LS그룹 내 소비자 부문 핵심 기업으로, 브랜드·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함으로써 스포츠 및 아웃도어 활동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라이프스타일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 성장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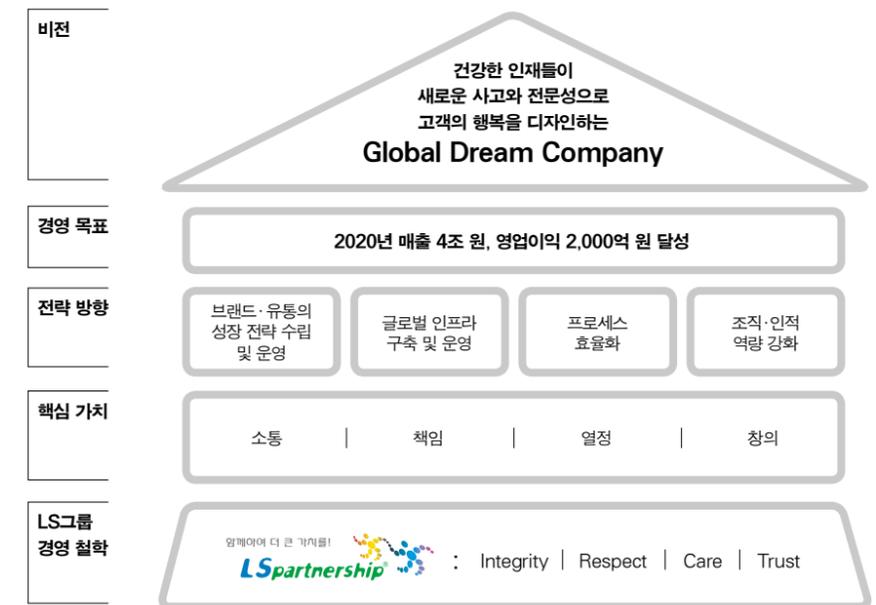
LS네트웍스는 글로벌 상사 사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CIS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 시장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오거나이징, 리스크 관리, 글로벌 네트워킹 등 상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LS네트웍스 사업 부문

브랜드 사업	유통 사업	글로벌 상사 사업	자산개발 사업
프로스펙스	바이클로	원자재·기자재	LS용산타워
몽벨	웍앤톡	기계·플랜트	김해/인천/성남/상주
스케처스		통신·전력	물류 부지
잭울프스킨		신재생 에너지	
		철강	
		신사업	

비전 체계

LS네트웍스는 2012년 전 임직원이 참여해 새로운 비전과 가치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LS네트웍스의 모든 구성원들이 내면화해야 할 정신적 가치와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 양식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경영 활동이 'Global Dream Company'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인재상

LS네트웍스인은 소통, 책임, 열정, 창의를 실천하여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SOUND People'을 지향합니다.

Strong Responsibility : 책임감 있는 인재

Open Communication : 소통하는 인재

Unlimited Passion : 열정적인 인재

New Way of Thinking : 창의적인 인재

Doing : 실천하는 인재

* SOUND는 '소리'라는 뜻과 함께, 신체와 정신이 '건전한·건강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History of LS Networks

LS네트웍스의 역사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여명기인 1949년, 부산에서 시작합니다. LS네트웍스의 전신인 (주)국제상사는 1962년부터 농구화 등을 수출하며 경제 발전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고, 1981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인 프로스펙스를 탄생시켰습니다. 2007년, 외환 위기 이후 8년 여에 걸친 법정관리 끝에 LS그룹의 가족이 되면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LS네트웍스는, 이후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LS네트웍스는 LS그룹 내 핵심 소비재 기업으로서 공격적인 신규 브랜드 론칭, 유통 사업 진출,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상사 사업, 자산 개발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949~1980: 태동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세워질 무렵 1949년, 부산에 설립된 (주)국제화학을 전신으로 LS네트웍스의 역사적인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 1949 • (주)국제화학 창립
- 1962 • 농구화 국내 최초 수출
- 1969 • 사상공장 가동
- 1973 • 기업 공개(KOSPI 상장)

1981~1997: 성장기

1981년 론칭한 프로스펙스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하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자라났습니다.

- 1981 • 자체 브랜드 프로스펙스 개발, 미국 씨어스 사에 5천만 족 수출
- 1982 • 뉴델리 아시안 게임 출전 선수 후원
- 1983 • 스포츠제품 과학 연구센터 설립
- 1984 • (주)국제상사로 상호 변경
• 전문경기화 31족 개발
• LA올림픽 출전 선수 후원
- 1985 • 용산사옥 완공 및 입주

- 1986 • 아시안게임 공식 후원 업체
• 프랑스 사텍 사와 브랜드 수출 계약
• 우리 상표 전시회 상표대상 수상, 40여 개국 상표 등록 출원
- 1987 • 이탈리아 말소 사와 브랜드 수출 계약
• 북유럽 4개국 총판 체제 구축
• 파키스탄 하키펠티 공식 후원
- 1988 • 서울올림픽 공식 후원 업체
- 1992 • 그랜드슬램 테니스화 2백만 족 생산 돌파
- 1994 • 신발발창용 특수고무 AI-5100 개발, ISO 9001 인증 획득
- 1995 • 운동화·등산용품 우수산업디자인(GD) 마크 획득
• 통상산업부 '일류화상품표시 승인업체'로 지정
- 1997 • 프로스펙스컵 프로축구대회 창설

1998~2007: 조정기

외환 위기 이후 8여 년의 난관을 잘 극복하고 2007년 LS그룹의 가족이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 1998 • 국가고객만족도(NCSI) 스포츠화 부문 1위
- 2000 • 법정관리(~2007)
- 2007 • LS그룹 계열사 편입

2008~현재: 도약기

LS네트웍스는 스포츠 및 아웃도어 브랜드 론칭, 글로벌 상사 사업 전개 등을 통해 점차 그 영역을 넓혀 가며 더 큰 성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 2008 • (주)LS네트웍스로 상호 변경 및 프로스펙스 신규 BI 론칭
• (주)오디캠프(몽벨 브랜드 운영사) 자회사로 편입
• ARTIS 사업 분할 등 3차 구조 조정
- 2009 • 스포츠 워킹 전문 브랜드 W 론칭
• (주)FAST사(스케처스 브랜드 운영사) 흡수 합병
• 유럽 No.1 아웃도어 브랜드 잭울프스킨 전개
• 토요타(TOYOTA) 자동차 딜러 사업 진출
- 2010 • 상사 업무 전개
• 자전거 전문 브랜드 바이클로(biclo) 전개
• LS용산타워 리모델링 공사 완료('07.11~'10.3)
- 2011 • 아웃도어 라이프 멀티숍 워킹톡(WALK&TALK) 전개
• (주)스포츠모터사이클 코리아 인수
• 중국 현지법인 설립
• 자회사 오디캠프 흡수 합병
• 몽벨, 베이징 현지 직영 1호점 개설
• 모스크바 및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설립
• (주)흥업 인수
- 2012 • 흥업 영업 활동 재개
• 새로운 비전 및 가치체계 수립, 확산 진행
• 평가 제도 및 보상 제도 개선(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화)
• LS네트웍스 매출 6천억 원 돌파
• 카자흐스탄 광통신 기자재 공장 준공 (알파 네트워크 JV)
• 바이클로 아카데미 개원

경영 실적 분석

본 경영 실적 분석 및 전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재무 정보, 영업 실적 및 사건에 관련한 추정, 계획 및 예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영자의 계획과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경영 실적 및 전망은 향후 당사가 처하게 될 정치·경제적 영업 환경을 반영한 추정 계획 및 예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은 제반 정보에 대해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정, 계획 및 예상은 작성일 현재 시점의 사항만을 서술하므로 당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본 경영 실적 분석 및 전망에서 '당사'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LS네트웍스'를 지칭합니다.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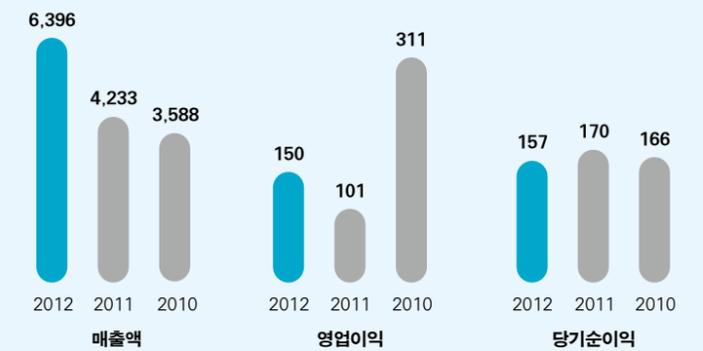
2012년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 절벽, 중국을 포함한 신흥 시장의 경기 둔화 등 세계 경제가 지극히 불안한 가운데, 한국 경제는 높은 무역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경제 성장을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LS네트웍스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과 유통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 및 선도적 경영 환경 분석을 통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 동력원이 될 글로벌 상사 부문의 아이템 개발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II. 영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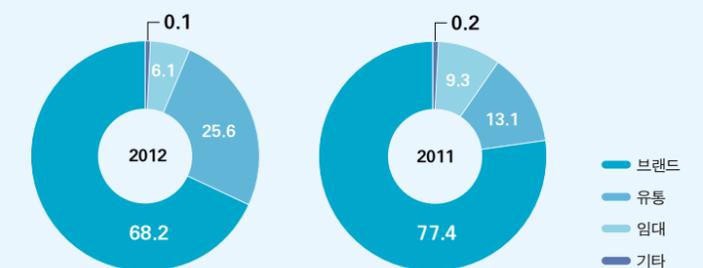
2012년 LS네트웍스는 주력 사업인 브랜드 사업 부문에서 프로스펙스 워킹화 'W', 러닝화 'R'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스포츠 브랜드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몽벨의 인지도 상승으로 아웃도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상사 사업이 전년 대비 357%의 매출 증가를 기록함에 따라, 2012년 매출액 및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1.1% 및 49.7% 증가한 6,396억 원과 150억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비용 부담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157억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위: 억 원)



2012년 LS네트웍스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브랜드 사업(프로스펙스, 스케처스, 몽벨, 잭울프스킨)이 68.2%, 글로벌 상사 및 유통 사업 25.6%, 임대 사업 6.1%, 기타 사업 부문 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12년 글로벌 상사 및 유통 사업 부문 매출이 비약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그 비중이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고, 브랜드 사업 및 임대 사업의 비중은 각각 9.2% 및 3.2%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 기준 매출 구성표 (단위: 억 원)



1. 사업 부문별 경영 실적

브랜드 부문은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경제 상황 하에서도 기존 주력 브랜드인 프로스펙스의 스타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스케처스, 몽벨, 잭울프스킨의 고유 콘셉트 및 라인업 강화로 시장 공략에 집중된 결과, 브랜드 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33.2% 증가한 4,361억 원, 영업이익은 163.7% 증가한 18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중국 현지 법인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사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미국, 중국 등지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영 실적 분석

글로벌 사업 부문은 2011년부터 해외 거점 마련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 공약의 결과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유통 부문은 바이클로와 워앤톡, 멀티브랜드 사업이 유통망의 증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토요타 자동차 딜러 사업에서는 신차증 론칭 효과로 매출액이 125%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통 사업 부문의 총 매출액은 1,6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4.5% 증가하였습니다.

임대 사업 부문의 경우 국내 부동산 경기 전반이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수요 또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환경에서도 당사는 LS용산타워를 주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탁월한 입지 조건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입주 고객사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LS용산타워 지하층의 아케이드 구성으로 입주사의 니즈를 반영하는 동시에 당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 부문의 매출은 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소폭 하락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상각 비용의 증가로 150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21.9% 감소하였습니다.

비교식 요약영업이익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1	증감	%
매출액	6,396	4,233	2,162	51.1%
매출원가	3,603	2,095	1,508	72.0%
매출총이익	2,793	2,138	654	30.6%
매출총이익률(%)	43.7%	50.5%	-	-
판매비와관리비	2,642	2,038	604	29.7%
영업이익	150	101	50	49.7%
영업이익률(%)	2.4%	2.4%	-	-

2. 당기순이익

2012년 당기순이익은 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전년도 대비 1.5% 하락한 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에는 몽벨 합병으로 법인세 환급 요인이 있었으나 2012년도에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반영된 것에 기인합니다.

비교식 당기순이익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1	증감	%
금융수익	261	166	95	57.5%
금융원가	217	158	58	37.0%
세전순이익	233	124	109	87.7%
당기순이익	157	170	(13)	(7.8)%
당기순이익률(%)	2.5%	4.0%	-	-

Ⅲ. 재무 상황

1. 자산

2012년 LS네트웍스의 자산 총계는 12,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상사 부문과 브랜드 사업 부문의 매출 채권 증가 및 글로벌 상사 부문 재고 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은 큰 변동이 없으며, 재고 자산의 회수 기간은 크게 감소하여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비교식 요약 자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1	증감	%
유동자산	2,651	2,014	637	31.6%
현금성자산	73	38	35	92.1%
매출채권	705	386	319	82.6%
기타수취채권	95	63	32	50.8%
재고자산	1,744	1,481	263	17.8%
기타유동자산	34	46	(12)	(26.1)%
비유동자산	9,921	9,943	(22)	(0.2)%
유형자산	2,173	1,988	185	9.3%
투자부동산	5,669	5,827	(158)	(2.7)%
기타비유동자산	2,079	2,128	(49)	(2.3)%
자산 총계	12,572	11,957	615	5.1%

2. 부채 및 자본

2012년 LS네트웍스의 부채 총계는 5,6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220억 원 및 장기차입금의 증가 203억 원에 기인한 것으로, 글로벌 상사 부문 및 유통 사업 부문의 신규 거래처 개발 및 투자로 인한 것입니다.

경영 실적 분석

부채 비율은 81.0%로 전년도의 부채 비율인 75.2%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금융 기관의 신용에 의한 약정 한도에 여유가 있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에 의한 자본의 조달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에게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LS네트웍스의 자본 총계는 6,9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당기순이익 157억 원의 발생으로 인한 증가 및 배당금의 지급으로 인한 감소가 9억 원입니다. 당사는 매년 배당금 지급을 통해 주식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비교식 요약 부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1	증감	%
유동부채	3,454	834	2,620	314.1%
매입채무	234	179	55	30.7%
차입금	2,618	396	2,222	561.1%
기타유동부채	602	259	343	132.4%
비유동부채	2,170	4,299	(2,129)	(49.5)%
기타지급채무	526	489	37	7.6%
차입금	926	2,581	(1,655)	(64.1)%
기타비유동부채	718	1,229	(511)	(41.6)%
부채 총계	5,624	5,133	491	9.6%

비교식 요약 자본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1	증감	%
자본				
자본금	3,941	3,941	-	0.0%
기타불입자본	(79)	(82)	3	3.7%
기타자본구성요소	34	42	(8)	(19.0)%
이익잉여금	3,052	2,923	129	4.4%
자본 총계	6,948	6,824	124	1.8%

IV. 현금 흐름

당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172억 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매출 채권의 증가와 재고 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117억 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었으며, 재고 자산 회전 기간의 감소 추가가 지속될 경우 차기 연도에는 더욱 개선된 현금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143억 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유형 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유출과 LS네트웍스 북경법인에 대한 유상증자로 인한 것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511억 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었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351억 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회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2012년 당사의 순 현금 흐름은 36억 원 현금 유입이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현금 흐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식 요약 현금흐름표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1	증감	%
현금의 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72)	(289)	117	40.5%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43)	(654)	511	78.1%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351	804	(453)	(56.3)%
현금의 증가(감소)	36	(139)	175	125.9%

V. 2013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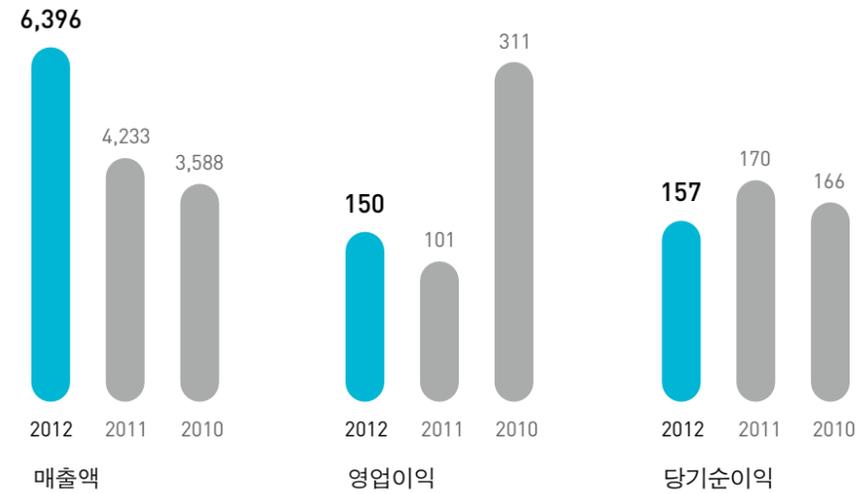
2012년 LS네트웍스는 LS그룹에 합류한 이래 처음으로 6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 부문은 프로스펙스의 확고한 동종 업계 3위 달성, 몽벨, 스케처스 등 신규 브랜드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상사 부문에서는 기존 자원 트레이딩 사업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신규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자 합니다. 유통 사업 부문은 기존 사업의 내실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013년 한국 경제는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시장 상황에서 LS네트웍스는 2013년 경영 방침을 '내실 경영'으로 정하고,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사업 부문을 재편하는 한편, 불황 이후 더 큰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책임 경영 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2012 Financial High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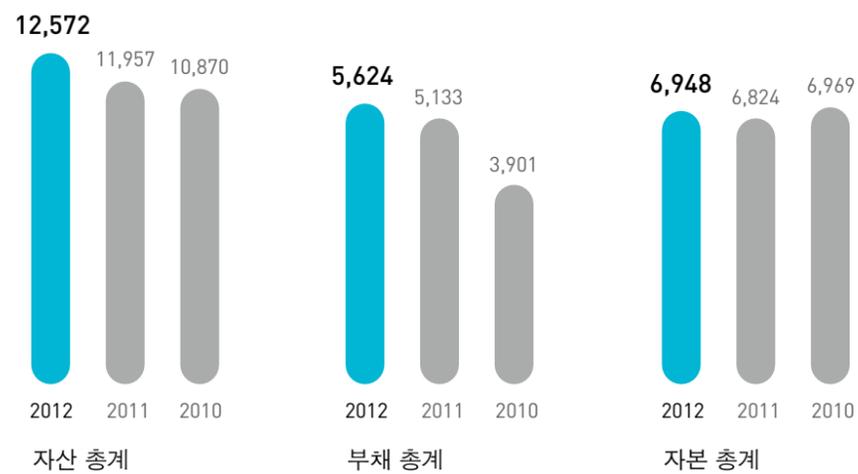
1.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2.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Financial Statement

2012년 LS네트웍스는, 변화된 경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전 임직원이 생산 및 영업 활동 등 각 분야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12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1.1% 및 49.7% 증가한 6,396억 원과 150억 원을 실현하였고, 총 자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조 2,572억 원, 부채 비율은 81.0%를 보이면서 동종 업종 대비 비교적 양호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대표이사 귀하

2013년 3월 21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본 감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 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 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 원칙과 유의적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 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2012년 12월 31일 및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권승화

權勝和

※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대표이사 귀하

2013년 3월 21일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201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 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 기간의 내용을 추정 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 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 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는 지분옵션계약 등과 관련한 계약서의 관리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계약서상 거래의 실질이 회계 처리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주요 계정과목의 왜곡 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2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권승화

權勝和

재무상태표

제63기 말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62기 말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61기 말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63기 말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62기 말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61기 말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 원)

	제63기(말)	제62기(말)	제61기(말)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7,318,964,733	3,775,561,798	17,657,187,096
매출채권	70,492,246,035	38,641,910,583	22,882,506,785
기타수취채권	9,502,138,340	6,272,085,310	4,623,101,257
기타금융자산	1,105,879,278	1,456,601,780	10,485,036,000
파생상품자산	310,286,119	-	-
기타유동자산	1,997,158,508	3,135,639,228	12,336,505,368
재고자산	174,386,887,205	148,123,633,832	86,071,842,782
유동자산합계	265,113,560,218	201,405,432,531	154,056,179,288
비유동자산			
기타수취채권	20,459,257,300	21,938,858,619	17,251,984,808
종속기업투자	26,644,569,616	21,710,111,816	18,322,821,307
관계기업투자	141,401,008,105	143,520,296,105	141,401,008,105
공동지배기업투자	1,534,460,654	650,696,654	-
기타금융자산	8,021,763,353	13,912,550,855	10,444,451,073
기타비유동자산	1,447,763,780	1,635,003,544	922,045,045
유형자산	217,335,499,314	198,827,775,183	165,218,307,240
투자부동산	566,915,543,823	582,690,562,364	570,417,471,225
무형자산	8,329,352,430	9,446,507,766	8,926,265,439
비유동자산합계	992,089,218,375	994,332,362,906	932,904,354,242
자산총계	1,257,202,778,593	1,195,737,795,437	1,086,960,533,530

	제63기(말)	제62기(말)	제61기(말)
부채와자본			
유동부채			
매입채무	23,427,622,814	17,870,863,499	12,482,596,623
기타지급채무	18,553,344,638	18,462,956,077	11,240,791,961
차입금	261,824,950,766	39,587,222,308	1,969,774,184
기타유동부채	8,169,092,119	5,059,469,937	4,835,782,770
파생상품부채	32,260,525,294	-	-
당기법인세부채	1,173,158,197	2,441,065,229	6,034,259,342
유동부채합계	345,408,693,828	83,421,577,050	36,563,204,880
비유동부채			
기타지급채무	52,642,961,460	48,888,787,533	43,624,555,425
사채	49,870,669,280	-	-
차입금	42,692,566,635	258,068,974,123	173,842,197,892
기타비유동부채	1,638,419,914	1,849,672,857	2,050,589,131
파생상품부채	794,153,994	56,561,598,815	70,156,064,323
퇴직급여부채	3,171,605,451	-	15,931,517
이연법인세부채	66,215,496,620	64,537,512,105	63,832,416,967
비유동부채합계	217,025,873,354	429,906,545,433	353,521,755,255
총부채	562,434,567,182	513,328,122,483	390,084,960,135
자본금과적립금			
자본금	394,091,500,000	394,091,500,000	393,464,130,000
기타불입자본	(7,920,703,249)	(8,199,953,098)	(46,418,640,044)
기타자본	3,445,790,527	4,247,453,938	6,231,212,862
이익잉여금	305,151,624,133	292,270,672,114	343,598,870,577
자본총계	694,768,211,411	682,409,672,954	696,875,573,395
부채와자본총계	1,257,202,778,593	1,195,737,795,437	1,086,960,533,530

포괄 손익계산서

제63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62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 원)	
	제63기	제62기	
매출액	639,561,787,379	423,313,531,527	
매출원가	(360,281,626,361)	(209,465,133,630)	
매출총이익	279,280,161,018	213,848,397,897	
판매비와관리비	(264,237,048,696)	(203,796,772,657)	
영업이익	15,043,112,322	10,051,625,240	
기타수익	14,013,692,582	3,457,461,663	
기타비용	(10,201,204,523)	(1,855,726,832)	
금융수익	26,123,570,997	16,582,041,320	
금융원가	(21,667,115,943)	(15,817,518,95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312,055,435	12,417,882,434	
법인세비용 (혜택)	7,624,973,798	(4,587,449,756)	
당기순이익	15,687,081,637	17,005,332,190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25,585,001)	(1,983,758,924)	
파생상품평가손실	(776,078,410)	-	
보험수리적손실	(1,621,793,094)	(469,230,825)	
총포괄이익	13,263,625,132	14,552,342,441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00	211	

자본변동표

제63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62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 원)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계	
2011년 1월 1일(전기초)	393,464,130,000	(46,418,640,044)	6,231,212,862	343,598,870,577	696,875,573,395	
전기순이익	-	-	-	17,005,332,190	17,005,332,190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1,983,758,924)	-	(1,983,758,924)	
보험수리적손실	-	-	-	(469,230,825)	(469,230,825)	
총포괄이익	-	-	(1,983,758,924)	16,536,101,365	14,552,342,441	
현금배당	-	-	-	(1,073,884,500)	(1,073,884,500)	
주식배당	627,370,000	-	-	(627,370,000)	-	
감자차손의 이익잉여금 처분	-	45,431,417,853	-	(45,431,417,853)	-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	279,249,849	-	(279,249,849)	-	
자기주식의 취득	-	(7,491,980,756)	-	-	(7,491,980,756)	
종속기업의 합병	-	-	-	(8,594,070,438)	(8,594,070,438)	
유형자산재평가	-	-	-	(11,858,307,188)	(11,858,307,188)	
2011년 12월 31일(전기말)	394,091,500,000	(8,199,953,098)	4,247,453,938	292,270,672,114	682,409,672,954	
2012년 1월 1일(당기초)	394,091,500,000	(8,199,953,098)	4,247,453,938	292,270,672,114	682,409,672,954	
당기순이익	-	-	-	15,687,081,637	15,687,081,637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25,585,001)	-	(25,585,001)	
파생상품평가손실	-	-	(776,078,410)	-	(776,078,410)	
보험수리적손실	-	-	-	(1,621,793,094)	(1,621,793,094)	
총포괄손익	-	-	(801,663,411)	14,065,288,543	13,263,625,132	
현금배당	-	-	-	(905,086,675)	(905,086,675)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	279,249,849	-	(279,249,849)		
2012년 12월 31일(당기말)	394,091,500,000	(7,920,703,249)	3,445,790,527	305,151,624,133	694,768,211,411	

현금흐름표

제63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62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3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2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 원)

	제63기	제62기
영업활동		
당기순이익	15,687,081,637	17,005,332,190
비현금항목의 조정 :		
감가상각비	14,151,091,449	11,739,033,251
무형자산상각비	1,419,621,975	1,107,665,372
대손상각비	64,399,474	2,280,000
광고선전비	-	692,317,333
재고자산폐기손실	1,599,561,278	164,375,661
외화환산손실	200,960,518	177,154,914
외화환산이익	(351,927,688)	(30,413,712)
퇴직급여	2,838,290,497	2,186,348,002
유형자산처분손실	323,656,000	122,969,000
유형자산처분이익	(7,655,131,466)	(28,024,876)
기타의대손상각비	2,396,948,440	-
투자자산손상차손	2,119,288,000	-
무형자산손상차손	682,077,640	-
확정계약평가손실	97,767,534	-
확정계약평가이익	(179,479,782)	-
파생상품평가손실	212,926,572	-
파생상품평가이익	(130,806,337)	-
법인세비용(수익)	7,624,973,798	(4,587,449,756)
금융수익	(26,123,570,997)	(16,582,041,320)
금융원가	21,667,115,943	15,817,518,957
운전자본의 조정 :		
매출채권	(32,005,291,031)	(13,323,263,889)
기타수취채권	(95,680,877)	(4,807,967,457)
기타금융자산	352,342,502	9,985,659,220
재고자산	(27,862,814,651)	(40,103,726,564)

(단위 : 원)

	제63기	제62기
기타유동자산	1,138,480,720	(2,755,167,971)
기타비유동자산	187,239,764	(712,958,499)
매입채무	5,589,855,343	1,627,997,055
기타지급채무	3,137,350,518	5,643,500,247
기타유동부채	3,109,622,182	(154,354,129)
기타비유동부채	(211,252,943)	1,454,266,328
퇴직금의 지급	(744,872,085)	(436,120,338)
퇴직금 관계회사 전입액	16,499,165	36,921,940
퇴직연금운용자산	-	(3,500,000,000)
법인세의 납부	(6,441,180,649)	(9,602,201,129)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7,184,857,557)	(28,860,350,170)
투자활동		
기타유동자산	-	12,000,000,000
투자부동산의 취득	(204,382,777)	(27,262,267,646)
유형자산의 취득	(13,716,343,764)	(28,675,856,191)
유형자산의 처분	822,288,409	593,294,495
무형자산의 취득	(984,544,279)	(1,996,317,272)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518,450)	(4,722,870,330)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4,778,051,800	4,510,000
이자수취	325,755,404	552,240,019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회수	-	1,400,000,000
배당금 수취	450,749,100	542,978,350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4,934,457,800)	(15,038,880,000)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	(2,119,288,000)
공동지배기업투자의 증가	(883,764,000)	(650,696,654)
합병으로 인한 증가	-	2,236,810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4,347,166,357)	(65,370,916,419)

현금흐름표 계속

제63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2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 원)

	제63기	제62기
재무활동		
차입금의 증가	167,905,029,663	260,062,075,634
차입금의 상환	(175,311,406,285)	(169,417,323,206)
사채의 발행	49,811,200,000	-
자기주식의 취득	-	(7,491,980,756)
이자지급	(6,353,995,308)	(1,725,963,917)
배당금의 지급	(905,086,675)	(1,073,884,500)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35,145,741,395	80,352,923,25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613,717,481	(13,878,343,334)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775,561,798	17,657,187,096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0,314,546)	(3,281,964)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318,964,733	3,775,561,798

연결 재무상태표

제63기 말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62기 말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61기 말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제63기(말)	제62기(말)	제61기(말)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511,298,692	7,149,504,443	17,701,168,345
매출채권	71,926,736,403	40,483,417,499	26,286,985,743
기타수취채권	9,377,833,900	6,503,413,259	4,836,952,848
기타금융자산	1,105,879,278	1,466,601,780	11,445,036,000
파생상품	310,286,119	-	-
기타유동자산	2,741,565,299	3,253,945,625	12,403,481,068
재고자산	179,821,483,555	151,234,383,021	101,583,472,431
당기법인세자산	5,310,870	9,020,120	8,659,440
유동자산합계	275,800,394,116	210,100,285,747	174,265,755,875
비유동자산			
기타수취채권	21,986,277,435	23,295,507,468	18,632,764,808
관계기업투자	285,504,896,552	288,754,696,882	273,549,421,585
공동지배기업투자	1,209,166,774	635,809,914	-
기타금융자산	8,029,113,353	9,199,900,855	10,503,082,673
기타비유동자산	1,447,763,780	1,635,003,544	922,045,045
유형자산	233,685,480,930	215,418,617,906	167,513,079,265
투자부동산	566,915,543,823	582,690,562,364	570,417,471,225
무형자산	9,379,886,292	10,455,185,565	9,021,845,687
비유동자산합계	1,128,158,128,939	1,132,085,284,498	1,050,559,710,288
자산총계	1,403,958,523,055	1,342,185,570,245	1,224,825,466,163

연결 재무상태표 계속

제63기 말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62기 말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61기 말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제63기(말)	제62기(말)	제61기(말)
부채와자본			
유동부채			
매입채무	25,782,891,935	19,382,766,456	13,330,853,673
기타지급채무	18,968,118,614	18,864,020,269	13,687,733,224
차입금	262,924,950,766	40,549,444,919	10,672,861,774
기타유동부채	8,903,433,932	6,051,050,094	4,990,624,770
파생상품부채	32,260,525,294	-	-
당기법인세부채	1,173,158,197	2,441,065,229	6,034,259,342
유동부채합계	350,013,078,738	87,288,346,967	48,716,332,783
비유동부채			
기타지급채무	49,600,014,793	45,855,340,866	41,941,555,425
사채	49,870,669,280	-	-
차입금	46,292,566,635	258,068,974,123	173,842,197,892
기타비유동부채	1,638,419,914	1,849,672,857	2,050,589,131
파생상품부채	794,153,994	56,561,598,815	70,156,064,323
퇴직급여부채	3,353,911,297	111,565,730	242,254,735
이연법인세부채	101,188,551,441	100,064,967,541	92,905,067,933
비유동부채합계	252,738,287,354	462,512,119,932	381,137,729,439
총부채	602,751,366,092	549,800,466,899	429,854,062,222
자본금과적립금			
자본금	394,091,500,000	394,091,500,000	393,464,130,000
기타불입자본	(7,920,703,249)	(8,290,757,498)	(46,451,918,644)
기타자본	(1,552,379,170)	6,815,305,179	9,138,491,623
이익잉여금	416,588,739,382	399,769,055,665	438,820,700,962
지배기업소유주지분합계	801,207,156,963	792,385,103,346	794,971,403,941
비지배지분	-	-	-
자본총계	801,207,156,963	792,385,103,346	794,971,403,941
부채와자본총계	1,403,958,523,055	1,342,185,570,245	1,224,825,466,163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제63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62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제63기	제62기
I . 매출액	654,844,454,198	454,028,664,147
II . 매출원가	(370,752,359,861)	(225,600,953,568)
III . 매출총이익	284,092,094,337	228,427,710,579
판매비와관리비	(274,618,861,002)	(224,736,986,624)
IV . 영업이익	9,473,233,335	3,690,723,955
기타수익	15,080,606,817	4,409,101,816
기타비용	(6,097,850,067)	(2,298,689,299)
금융수익	26,141,568,923	18,545,002,347
금융원가	(21,935,814,342)	(16,322,384,417)
지분법이익	7,255,330,948	14,669,526,854
지분법손실	(821,509,715)	(1,160,899,134)
V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9,095,565,899	21,532,382,122
법인세비용	(9,378,948,164)	(786,228,682)
VI . 당기순이익	19,716,617,735	20,746,153,440
VII .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25,585,001)	(1,983,758,924)
파생상품평가손실	(776,078,410)	-
보험수리적손실	(1,621,793,094)	(494,290,747)
부의지분법자본변동	(7,315,175,287)	(415,311,668)
해외사업환산손익	(250,845,651)	75,884,148
VIII . 총포괄이익	9,727,140,292	17,928,676,249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9,716,617,735	20,746,153,440
비지배지분	-	-
합계	19,716,617,735	20,746,153,440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9,727,140,292	17,928,676,249
비지배지분	-	-
합계	9,727,140,292	17,928,676,249
IX .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49	254

연결 자본변동표

제63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62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2011년 1월 1일(전기초)	393,464,130,000	(46,451,918,644)	9,138,491,623
당기순이익	-	-	-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1,983,758,924)
보험수리적손실	-	-	-
부외지분법자본변동	-	-	(415,311,668)
해외사업환산손익	-	-	75,884,148
총포괄손익	-	-	(2,323,186,444)
현금배당	-	-	-
주식배당	627,370,000	-	-
감자차손의 이익잉여금 처분	-	45,431,417,853	-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	279,249,849	-
자기주식의 취득	-	(7,491,980,756)	-
종속기업 유상증자 및 합병	-	(57,525,800)	-
유형자산재평가차액 이연법인세 변동효과	-	-	-
2011년 12월 31일(전기말)	394,091,500,000	(8,290,757,498)	6,815,305,179
2012년 1월 1일(당기초)	394,091,500,000	(8,290,757,498)	6,815,305,179
당기순이익	-	-	-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25,585,001)
보험수리적손실	-	-	-
부외지분법자본변동	-	-	(7,315,175,287)
해외사업환산손익	-	-	(250,845,651)
파생상품평가손실	-	-	(776,078,410)
총포괄손익	-	-	(8,367,684,349)
현금배당	-	-	-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	370,054,249	-
2012년 12월 31일(당기말)	394,091,500,000	(7,920,703,249)	(1,552,379,170)

(단위 : 원)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438,820,700,962	794,971,403,941	-	794,971,403,941
20,746,153,440	20,746,153,440	-	20,746,153,440
-	(1,983,758,924)	-	(1,983,758,924)
(494,290,747)	(494,290,747)	-	(494,290,747)
-	(415,311,668)	-	(415,311,668)
-	75,884,148	-	75,884,148
20,251,862,693	17,928,676,249	-	17,928,676,249
(1,073,884,500)	(1,073,884,500)	-	(1,073,884,500)
(627,370,000)	-	-	-
(45,431,417,853)	-	-	-
(279,249,849)	-	-	-
-	(7,491,980,756)	-	(7,491,980,756)
(33,278,600)	(90,804,400)	-	(90,804,400)
(11,858,307,188)	(11,858,307,188)	-	(11,858,307,188)
399,769,055,665	792,385,103,346	-	792,385,103,346
399,769,055,665	792,385,103,346	-	792,385,103,346
19,716,617,735	19,716,617,735	-	19,716,617,735
-	(25,585,001)	-	(25,585,001)
(1,621,793,094)	(1,621,793,094)	-	(1,621,793,094)
-	(7,315,175,287)	-	(7,315,175,287)
-	(250,845,651)	-	(250,845,651)
-	(776,078,410)	-	(776,078,410)
18,094,824,641	9,727,140,292	-	9,727,140,292
(905,086,675)	(905,086,675)	-	(905,086,675)
(370,054,249)	-	-	-
416,588,739,382	801,207,156,963	-	801,207,156,963

연결 현금흐름표

제63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2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제63기	제62기
I . 영업활동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	19,716,617,735	20,746,153,440
2. 비현금항목의 조정 :	-	
감가상각비	14,794,981,277	12,403,770,611
무형자산상각비	1,908,041,675	1,143,825,978
대손상각비	-	34,458,719
대손상각비환입	(82,931,337)	-
기타대손상각비	2,396,948,440	7,000,000
광고선전비	-	692,317,333
재고자산폐기손실	1,601,239,676	230,003,873
외화환산손실	202,229,510	299,704,303
외화환산이익	(378,741,763)	(94,962,635)
지분법손실	821,509,715	1,160,899,134
지분법이익	(7,255,330,948)	(14,669,526,854)
부의영업권환입	-	(1,932,300,229)
퇴직급여	2,928,963,613	2,352,034,885
유형자산처분손실	323,656,000	200,509,259
유형자산처분이익	(7,655,772,491)	(36,661,084)
무형자산손상차손	682,077,640	286,667
투자자산손상차손	370,478,435	-
사채상환손실	-	12,802,932

(단위 : 원)

	제63기	제62기
확정계약평균손실	97,767,534	-
확정계약평균이익	(179,479,782)	-
파생상품평균손실	212,926,572	-
법인세비용	9,378,948,164	786,228,682
금융수익	(26,272,375,260)	(16,612,702,118)
금융원가	21,935,814,342	16,309,581,485
3. 운전자본의 조정 :		
매출채권	(31,637,175,577)	(13,742,545,389)
기타수취채권	311,357,214	(5,339,249,600)
기타금융자산	352,342,502	9,985,659,220
재고자산	(30,188,340,210)	(49,035,732,298)
기타유동자산	(3,015,205,245)	(2,812,149,476)
기타비유동자산	187,239,764	(712,958,499)
매입채무	(1,243,648,352)	4,475,360,321
기타지급채무	14,346,015,732	8,083,052,712
기타유동부채	2,852,383,838	273,106,558
기타비유동부채	(211,252,943)	(345,441,076)
퇴직금의 지급	(764,805,085)	(735,312,618)
퇴직금 관계회사 전입액	16,499,165	-
퇴직연금운용자산	-	(3,500,000,000)
법인세의 납부	(6,437,471,399)	(8,487,687,910)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9,884,491,849)	(38,860,473,674)

연결 현금흐름표 계속

제63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2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제63기	제62기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기타유동자산	-	12,000,000,000
투자부동산의 취득	(204,382,777)	(27,262,267,646)
유형자산의 취득	(14,121,967,026)	(30,555,661,081)
유형자산의 처분	822,929,434	631,148,945
무형자산의 취득	(1,514,820,042)	(2,519,493,161)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518,450)	(3,905,530)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58,051,800	4,510,000
이자수취	343,753,330	582,900,81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회수	-	1,400,000,000
배당금 수취	450,749,100	542,978,350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	(2,119,288,000)
공동지배기업투자의 증가	(883,764,000)	(650,696,654)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	(12,044,746,493)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5,049,968,631)	(59,994,520,453)

(단위 : 원)

	제63기	제62기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차입금의 증가	171,652,927,272	270,002,154,466
차입금의 상환	(175,321,526,505)	(170,896,759,830)
사채의 발행	49,811,200,000	-
자기주식의 취득	-	(7,491,980,756)
이자지급	(6,622,693,707)	(2,218,026,445)
배당금의 지급	(905,086,675)	(1,073,884,500)
유상증자	-	(90,804,400)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38,614,820,385	88,230,698,535
IV. 환율변동차이	(248,251,110)	75,913,654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3,432,108,795	(10,548,381,938)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149,504,443	17,701,168,345
VI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0,314,546)	(3,281,964)
VI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511,298,692	7,149,504,443

Global Dream Company

2012년, LS네트웍스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루며 각 사업부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13년, LS네트웍스는 내실 경영을 통해 브랜드 사업의 효율적인 솔루션을 완성하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며, 신수종 사업을 발굴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IR Contact 140-70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1층
Tel. 02-799-7044 Fax. 02-6442-5423

국내 네트워크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627-15
Tel. 055-330-7014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2층
Tel. 02-799-7114
www.lsnetworks.com

해외 네트워크

LS Networks Co., Ltd.

Moscow Office

902A, 12 Krasnopresnenskaya nab.,
Moscow, 123610, Russia
Tel. 070-4369-7590

LS Networks Co., Ltd.

Vladivostok Office

7A Postysheva St., Vladivostok,
60048, Russia
Tel. 070-4369-7591

자회사

LS Networks Trading(Beijing) Co., Ltd.

Unit 01~03, 11th Fl., East Tower,
LG Twin Towers, B-12 of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Tel. 86-10-5120-8600

케이제이모터라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3
모터라드 강남빌딩
Tel. 02-3453-9990
www.bmw-motorcycle.co.kr

스포츠택터사이클 코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세화빌딩 2층
Tel. 02-790-0999
www.ktm.co.kr

흥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9-2
Tel. 043-258-2233
www.hud.co.kr

토요타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 용산타워 1층
Tel. 02-799-7700
www.toyotayongsan.co.kr

토요타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76
Tel. 032-465-2300
www.toyotaincheon.com

렉서스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76
Tel. 080-330-4300
www.lexusincheon.com



140-70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2층

Tel. 02-799-7114

Fax. 02-6442-5423

www.lsnetworks.com